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10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국증시, 유가 반등에도 상승 마감

- 미국증시 주요 지수 상승 마감: 나스닥·S&P500, 7거래일째 상승
- 이스라엘 변수에 국제유가 상승..WTI 장 중 100달러 상회
- 물가 지표는 상승세, 실질 소비와 성장률은 둔화

Summary

미국증시 상승 마감

4월 9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이스라엘의 레바논을 향한 유화적인 움직임에 한 편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상승 마감. S&P500과 나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었고 다우지수는 이 날의 상승으로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 전환함.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58% 상승한 48,185.80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62% 상승한 6,824.66에 마감함. 나스닥 지수는 0.83%상승한 22,822.42에 거래를 마쳤으며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60% 상승한 2,636.31에 마감.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7.37% 하락한 19.49를 기록.

(다우 +0.58%, 나스닥 +0.83%, S&P500 +0.62%, 러셀2000 +0.60%)

이스라엘 움직임에 장 중 변동성 확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합의 이행과 이후 이어질 협상 관련 큰 방해물 중 하나였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이 날 시장을 받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날 "레바논 측이 지속적으로 직접 협상을 요구해온 점을 고려해 어제 내각에 가능한 한 빨리 협상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협상은 헤즈볼라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레바논 간 평화 관계 정립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 이라고 밝힘. 이에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공습이 멈출 것이란 기대가 커졌고 시장 내 매수 심리도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을 향해 레바논을 향한 공격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음.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성명에서는 "레바논에는 휴전이 없다. 강력한 힘으로 헤즈볼라를 계속 타격하고 있다"고 밝혀 레바논과의 평화 협상 등에 대한 그의 발언이 갖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됨.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해협 관리 수준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밝힘.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및 통제 수준이 새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며 "피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순교자들의 피의 대가도 반드시 청구할 것"이라고 말해.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전날 이란이 미국과 합의된 2주간의 휴전 기간 호

르무즈 해협에서 선박통행량을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 이들 보도에 따르면 통행료는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지급해야 하며 대형 유조선의 경우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전해짐.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이란 국적 이외 유조선은 현재 극히 소수에 불과해 미국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의 조건 없는 완전 개방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 만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힘.

이렇듯 이란의 핵심 휴전 조건인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중단', 미국의 핵심 휴전 조건인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향후에도 시장은 관련 이슈에 따른 변동성 확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전쟁 전에도 물가 상승 압력..성장률·소비는 둔화

이날은 미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2월치가 공개됨. 상무부는 지난 2월 PCE 가격지수가 1년 전에 비해 2.8% 상승했으며 전달에 비해서는 0.4% 상승했다고 밝히.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1년 전에 비해 3.0%,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4% 상승해 증가폭은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전년 대비 상승폭이 2.6%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뚜렷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음. 이번 지표는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2월 28일 이전의 물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전쟁 전에도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존재했음을 시사함.

함께 발표된 2월 개인 지출은 전월 대비 0.5%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 미국 가계의 개인 소득은 2월 182억 달러 감소해 전달 대비 0.1% 줄었으며 1월 증가율 0.4%와 비교해 감소세로 전환. 상무부는 개인 소득 감소와 관련해 개인 배당 소득과 경상 이전 수입의 감소가 주요인이라고 설명.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는 0.5%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 0.7%를 하회. 2025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 다만 지난해 전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2.1%로 시장 예상에 부합. 상반기 미국의 관세 부과로 기업과 가계는 구매를 앞당겼고 수입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해 무역 적자가 확대되며 4분기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해석.

주간 신규실업 청구건수는 21만 9천건으로 예상치 21만건을 웃돌았음. 다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에 비해 3만 8,000건 줄어 2024년 5월 11일 이후 최저를 기록.

요약하면 물가는 전쟁의 여파가 반영되기 전부터 상승 압력을 꾸준히 받고 있으며, 미국 경제의 동력인 개인 소비가 약화하고 성장은 둔화하는 흐름. 이런 가운데 고용은 해고도, 채용도 둔화된 활력이 떨어진 상태를 유지 중.

특징종목

반도체 강세-소프트웨어 약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3.63%)와 인텔(+4.70%)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유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0.34%), 어도비(-3.92%), 오라클(-4.04%) 등 소프트웨어주는 일제히 약세.

전 거래일 6.3% 급등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이 날도 2.10% 추가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3.63%), 인텔(+4.70%), 브로드컴(+1.22%), AMD(+2.08%), 램 리서치(+4.98%) 등 대부분 종목이 강세.

특히 인텔(+4.70%)은 테슬라(+0.69%)에 이어 구글(+0.52%)과도 협업을 강화한다는 소식.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 자사의 최신 중앙처리장치(CPU) 제온6를 비롯한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다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혀. 구글은 이전에도 인텔 칩을 사용해왔는데 이번에 계약을 연장한 것. 양사는 또 맞춤형 인프라 처리장치(IPU) 공동 개발 관련 협력도 확대하기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2.91%)는 스티펠이 투자의견을 기존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최근 대규모 설비 투자 사이클 종료와 3데이터센터 사업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평가.

마블 테크놀로지 그룹(+4.79%)은 바클레이즈가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하고 목표주가도 10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샌디스크(+9.09%)는 캔터 피츠제럴드가 '비중 확대' 투자의견을 재확인하는 한편 목표주가를 8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한 영향으로 오름폭 확대.

AI와 사모신용에서 비롯된 기존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전면에 부상했던 하루.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클로드 개발사로 유명한 앤스로픽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최신 AI 모델을 우선 제공하기로. 클로드 '미토스' 모델의 접근 권한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약 40개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이에 대해 앤스로픽은 모델 성능이 뛰어나 악용 가능성이 있어 사용 권한을 제한했다고 밝힘. 구체적으로 이 모델이 사이버 보안의 숨겨진 취약점을 노출할 우려가 있으며 이미 모든 주요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 등에서 수천 건의 취약점을 발견했다는 것. 이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성을 의미하며 AI가 눈부신 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때문에 소프트웨어주 전반이 약세. 사이버보안주 클라우드플레어(-8.62%), 옥타(-10.89%), 크라우드스트라이크(-7.46%), 센티넬 원(-5.41%).

지스케일러(-11.33%)는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 우려를 이유로 BTIG가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한 가운데 낙폭을 확대.

이외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사 아틀라시안(-7.32%)과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워크데이(-5.13%), 포토샵 개발사 어도비(-3.92%), 기업용 클라우드 기업 세일스포스(-2.89%), 터보택스 모회사 인튜이트(-6.86%) 등도 크게 하락.

업종 내에서는 팔란티어 테크(-7.30%)의 낙폭도 컸는데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앤스로픽이 팔란티어 등 AI 소프트웨어 업체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 그는 특히 팔란티어에 대해 수익성 높은 정부 계약을 많이 수주하긴 했지만 그것이 경쟁 우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

빅테크 강세: 아마존, 메타

메타 플랫폼스(+2.61%)는 전일 공개한 AI모델 '뮤즈 스파크'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 유지. 메타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코어위브(+3.49%)의 AI클라우드 인프라에 2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 142억 달러 계약에 추가되는 금액. 코어위브는 "전용 용량이 여러 지역에 배치되며, 일부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 루빈 플랫폼 초기 구축에 사용된다"고 설명. 코어위브는 메타의 AI 투자 확대 수혜주로 기대감을 높임.

아마존닷컴(+5.60%)은 앤디 재시 최고경영자(CEO)가 주주 서한을 통해 자체 AI 칩인 트레이니움과 그라비톤이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매출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으며 나아가 AI 칩 사업 부문을 독자 기업으로 가정해 제 3자에게 본격 판매를 시작하면 연간 매출이 500억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해 주가 상승에 불을 붙임. 아마존은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안나푸르나 랩스'를 중심으로 3대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있으며 반도체 사업 매출이 수개월 사이 급증해 투자자 기대감을 높임. 이외에도 자사의 약국 사업부가 일라이 릴리(+0.20%)의 경구용 GLP-1 제재인 파운다요를 3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발표. 2026년 말까지 서비스 제공 도시 수를 45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

이외 엔비디아(+1.00%), 애플(+0.61%), 알파벳(+0.52%), 테슬라(+0.69%) 등 마이크로소프트(-0.34%)를 제외한 M7 전반이 대체로 강세.

이외 개별 특징주

맥주 브랜드 모델로와 코로나를 보유한 컨스털레이션 브랜즈(+8.53%)는 2028년 가이던스를 철회하는 한편 수요 둔화를 언급하며 하락 출발했으나 급반등 마감.

고성능 데이터센터 운영사 어플라이드 디지털(-7.99%)은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도는 실적에도 하락. 실적 발표 전 이미 주가가 급등했던 바 있어 실적 발표 후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잭 다니엘 위스키 제조사 브라운 포맨(+11.44%)의 주가가 사제락 컴퍼니의 인수 가능성 타진 보도 이후 급등.

깃랩(-7.83%) 구겐하임이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하자 하락. 구겐하임은 AI 관련 위험, 단기적인 호재의 부재, 그리고 순매출 유지율 둔화를 이유로 투자의견을 하향함.

알코아(+2.10%)는 모건스탠리가 구조적으로 타이트한 시장 상황과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로 인한 알루미늄 가격 상승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투자의견을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기존 64달러에서 80달러로 상향.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금리 보합권 혼조

미 국채 금리는 보합권에서 혼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과 직접 협상하겠다고 밝히며 이란과 미국 사이 휴전 합의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다소 완화돼 장 중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네타냐후 총리 발언 직후 유가 하락과 맞물려 미 국채금리는 모든 구간에서 일중 저점을 기록. 10년물 금리는 한 때 4.259%까지 하락하기도. 다만 미국의 지난 2월 PCE 물가 지표는 전쟁 이전부터 인플레 압력이 상방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줘 금리 상승의 재료가 됨.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레바논에 휴전이 없다고 발언했다는 소식도 금리 하락을 제한함. 이처럼 혼재된 재료가 뒤섞여 금리는 보합권에서 혼조. 통화정책에 예민한 2년물 금리는 0.90bp 하락한 3.785%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0.30bp 상승한 4.293%에 거래됨.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1.10bp 상승한 4.897%를 기록.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반영. 12월까지 금리가 25bp 인상될 가능성은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며 25bp 인하 가능성은 20% 후반대를 나타냄.

달러 나흘째 약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4거래일 연속 하락. 달러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원만히 이행될 것에 대한 기대를 키우며 하락.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8.812로 전장 대비 0.172% 하락.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공습이 이어지며 미국과 이란 사이 휴전 합의, 나아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파키스탄에서의 협상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달러는 뉴욕장 시작과 함께 유가 상승과 맞물려 강세 압력을 받음. 다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위해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유가가 상승 폭을 줄였고 달러 인덱스도 상승 폭을 반납하고 반락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평화 합의가 손에 닿을 거리에 있다며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한 것도 달러 약세에 힘을 실음. 다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성명에서는 “레바논에는 휴전이 없다. 헤즈볼라를 계속 타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북부의 안보를 회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달러 약세 폭이 축소.

달러-원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1,482.50원 대비 7.80원 하락한 1,474.70원에 거래를 마침.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를 감안하면 1,478.80원을 기록.

WTI 반등..상승폭은 축소

상품 시장에서 국제유가는 전일의 급락을 뒤로 하고 반등.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충돌에 장중 8% 이상 급등하며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했던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의 레바논과의 평화 협상 지시 발언에 오름폭을 축소.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3.66% 상승한 배럴당 97.87달러에 마감.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은 전장 대비 1.8% 하락.

유가 하락과 함께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금리도 추가 상승이 제한된 영향으로 금과 은 등의 귀금속 가격도 전일에 이어 반등세를 지속.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